



저는 김민숙 데레사 수녀입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유아세례를 했고, 가정과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었기에, 입회 직전에야 갑자기 수도생활을 결정했다고 생각했지만, 섭리는 오래전부터 저를 수도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1991년 26명의 동기와 함께 입회했고, 1998년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첫 사도직은 강원 성요셉여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십여 년간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삶의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성요셉 분원 공동체에서 메리 노린 수녀님과 여러 미국 관구 수녀님들, 선후배 수녀님들과 생활하며, 수도자로서의 삶을 익히며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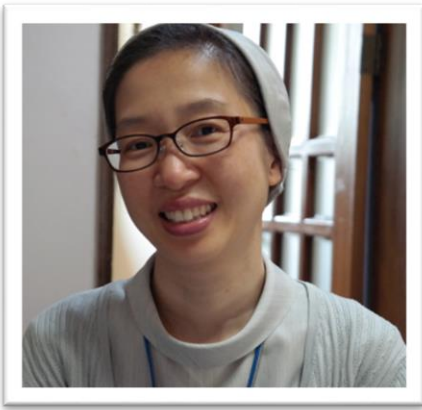
성소 담당과 수도회 홍보 관련 사도직을 하는 동안, 제게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수도자로서의 표지와 수도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공유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도하거나, 다양한 미디어 매체 프로그램을 다루어 결과물을 얻는 일이 작은 보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건강을 돌보느라 사도직을 떠나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 년째 수도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씨튼가족’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씨튼가족 회원들과 수도회 은사를 함께 나눌 기회를 찾고, 씨튼가족들이 삶의 자리에서 씨튼 영성을 살아가도록 지원할 방법을 찾으며 지냅니다. 그동안은 전국으로 지역 피정을 다니며 씨튼가족 회원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수도회 은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도로망은 좋아지고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서로의 물리적 거리는 짧아졌지만, 코로나 대유행의 시대는 모든 만남의 기회를 차단했습니다.



‘씨튼가족’ 소식지를 기획하고 편집하며, 씨튼가족과 또 다른 소통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씨튼가족’ 소식지를 통해 수도회의 비전과 영성을 공유하며, 씨튼가족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엘리사벳 씨튼의 영성을 살아가고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Hello, Sisters! I am Sister Kim Min Suk, Teresa.

Two months after my birth, I was baptized. I received faith education at home and Sunday School since early childhood. Pursuing worldly success in my life, I made a sudden decision to become a sister right before the entrance ceremony. However, I know that Providence has led me to religious life from long ago. I, with twenty-six women, entered our community in 1991 and had perpetual vows in 1998.

My first ministry was to teach students at Gangjin Girls High School. Though I was a teacher who taught students Korean for several decades at school, my students were teachers who taught me how to love in my life. And the time of living with Sr. Mary Noreen Lacey, many American sisters who were missioned to Korea, and other Korean junior and senior sisters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learn religious life and mature.



While taking charge of vocation recruitment and ministry-related to Province PR for a few years, I had the time to think about how I can witness as a religious and share our community identity in the Church and the world. Developing and trying new programs or getting results through creating media programs were worthwhile to me in some ways.

I had to take time to recuperate due to a health issue. I have been working as a “Seton Family” ministry staff for our benefactors for the last five years. In my ministry, I am looking for the chance to share our charism with Seton Family, trying to find a way to support them to live out our spirituality in their lives. Before the Coronavirus outbreak, the Seton Family ministry staff members visited all the family members across the country to give a retreat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them. However, we could not do it anymore, even though communication technology made the physical



distance shorter, the COVID-19 crisis blocked all the ways of encountering people.

Amid this challenge, I am looking for another way to communicate with the Seton Family while designing and editing the “Seton Family Journal.” Through this journal, I am sharing our vision and spirituality with them. I hope this effort helps them live out and take shelter under Mother Seton's spirituality in their lives. We are sowing the seeds. However, it is God who makes the harvest.

